

# 일체여래에 의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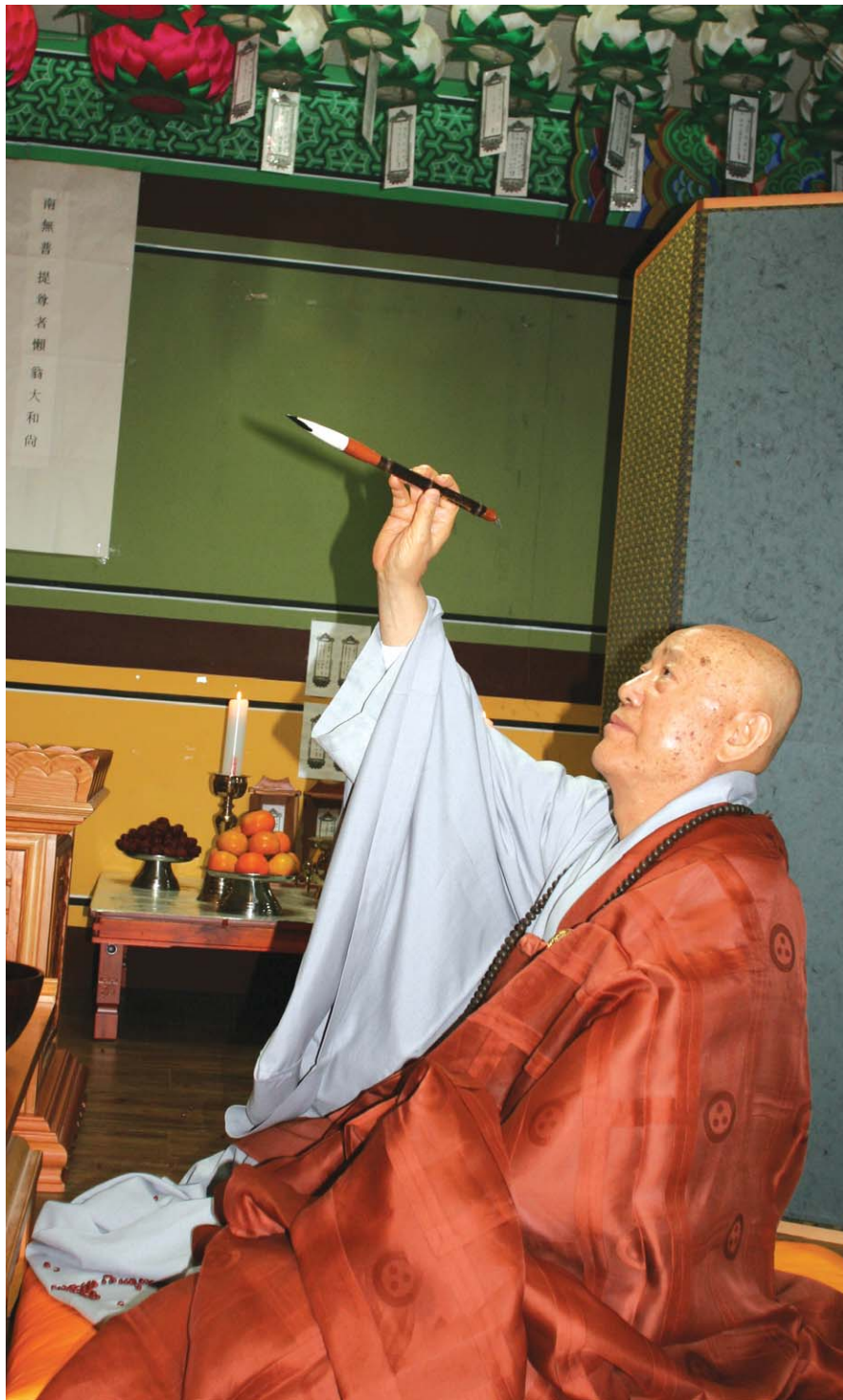


면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수 행을 해야 합니다. 이를 가르치는 덕목이 바로 십바라밀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여섯 바라밀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실천덕 목이고, 방편 원력 지의 네 가지 바라밀은 타인 을 이롭게 하는 실천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바 라밀의 실천덕목을 지킴으로써 무상정등정각 의 보리심을 지키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종사는 열 가지의 바라밀 항목을 모두 선창하고 불자들에게 큰 소리로 따 라 외우도록 했다.)

다섯 번째로 일체법으로써 의지를 삼으라(一切法爲依)고 했습니다. 세간의 '유무의 인연법' 출세간의 '무무의 근본법' 부사의(不思議)의 미묘법을 통틀어 일체법이라 합니다. 이 모든 법 을 의지해 수행함으로써 구경에는 육계 색계 무 색계를 다 떠나 진리의 자리로 들게 되는 것입 니다. 다음으로는 대원(大願)에 의지할 것을 가르칩니다. 서원이 없이는 성취도 없기 때문입 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불교에 입문할 때 무엇 을 서원 했습니까? 서원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 기 위해 매진하는 것이 보리를 증장하는 인연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일곱 번째는 제행(諸行)에 의지라는 것인데, 제행이란 차별을 두지 않고 두루 받들어 행하는 것입니다. 수행자에게 있어 제행이란, 참선으로 의단독로하고 염불로 삼매 를 증득하고 간경으로 지혜를 증장하며 주력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불사로 복덕을 구축하는 것 입니다.

여덟 번째는 일체보살에 의지하라(一切菩薩 爲依)는 것입니다. 중생이 중생거리 의지하면 성불할 수 있었습니까? 안됩니다. 성불할 수 없 습니다. 그릇된 소견만 더 키우게 됩니다. 반드시 일체제불과 보살에 의지해야 합니다. 다음 아홉 번째 의지처가 제불에 공양하는 것으로 의 지처를 삼으라(諸佛供養爲依)는 것입니다. 모든 보살에게 의지하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으로 의지처를 삼으면 신심이 정정해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의 의지할 바를 잘 알아서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일체여래를 의지하 는 길(一切如來依)입니다. 보현보살이 열 가지 의지처를 설했으니, 여러분들도 이 열 가지의 뜻을 잘 새기시어 정진하는데 밑거름으로 삼으 시기 바랍니다. **임연태 기자**



울산 연화사 법당에 모셔진 관세음보살상의 점안을 하는 도문 스님.

**불심 도문 스님** 백용성(白龍城) 조사의 10가지 유훈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불심 도문 스님은 1935년 전북 남원에서 출생했다. 1946년 장성 백양사에서 동헌 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0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경주 분황사, 영주 부석사, 공주 마곡사, 의성 고운사, 장성 백양사, 정읍 내장사, 서울 대각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장수 죽림정사, 경주 천룡 사지 조실이다. 국내와 인도의 부처님 성지 복원에 힘쓰고 있으며 <불교인의 365일> 등의 책을 펴냈다. 무엇보다 옹사(翁師)이신 용성 진종 스님의 번역본 경전과 어록 등을 140만 권이나 무주상법보시로 보급하는 기록을 세웠다. 최근 조계종 최고의 법계인 대종사 품계를 받았다.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20>승산 스님의 법은사 고봉 대선사

고봉 스님(1919~1979)은 승산 스님(1927~2004)의 은사이다. 1960년 탑골 승방에서 처음 뵈고 16년 만에 스님의 전기를 쓰다 보니 그의 역사가 더욱 소상하게 드러나게 됐다.

고봉 스님의 모습은 만해 한용운 스님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이마가 더 넓고 머리가 많이 벗겨졌으며,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생긴 미남 장부였다. 평상시 거의 말이 없고 글 한 쪽을 남기지 않아 스님의 역사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스님은 1890년 대구에서 태어나 15세에 유교를 공부하고, 파계사 성전에 가서 도를 깨닫고 22년 정해사 만공 스님께 가니 물었다. "뭘 허러 왔느냐?" "보여 드릴게 있어서 왔습니 다."

와서는 "당나귀 값을 내 놓으라" 했다.

"이놈, 탁발은 해 오지 않고 왜 당나귀 값이나?"

"제가 여기 있었으면 보름동안 당나귀 값만 먹었겠습니까? 쌀도 먹지 않고 용돈도 쓰지 않았으 니, 어서 값이나 내 놓으세요."

하여 만공 스님은 당나귀 값을 줬다 한다.

스님은 1939년 대구 청수장으로 나와 김법린 선생과 같이 항 일운동을 하다가 잡혀 심한 고문을 당했으므로, 말년에는 중풍 이 들어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

양산 내원사 선방에 있을 때는 해월 스님이 논밭을 개간한다고 학생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해 모 두 바싹 말라 있었다. 해월 스님 이 부산에 가고 없는 틈을 타 큰 소 한 마리를 몰고 가 팔아까지



주일이 지났는데도, 죽 쫓 생각을 하지 않으니, 탄옹 스님이 "비가 그쳤네"하고 죽을 쫓아 먹은 뒤 말했다. "자네 기다리다 꼭 죽을 뻔 하였네."

### 평상시 조용하고 글 한쪽 남기지 않아 행적 찾기 힘들어

"뭐냐?" "이것입니다."

하고 밤새도록 도반 금봉과 함께 그린 묵화를 내놓았다.

"이것이 무엇이나?" "사내 대장부입니다."

"어허, 폭지가 잘 익은 복숭아 로구나. 네 이놈들, 어른을 놀려 도 분수가 있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작란(作亂)을 쳐!"

"자란이 아니라 법답입니다."

"종아리 걸어라." 하고 한참을 치다가 물었다.

"아프지 않느냐?"

"시원합니다. 무심(無心)으로 맞으니 맺혔던 어혈이 풀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 법은 꾸밈이 없는 것이 다. 여기서 한철 나려면 식량을 구해와야 하니 가서 탁발을 해 오너라."

그래서 스님은 나가 보름동안 놀다가 남의 당나귀를 빌려 타고

고 실컷 먹고 남은 돈을 원주에 게 맡겼다.

해월 스님이 돌아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야단치자,

웃을 흘랑 벗어 버리고 조실방 을 기어 다니면서, '음매 음매' 하 니,

해월 스님이 "내 소는 어미 소 지, 새끼소가 아니다"하고 궁둥 이를 쳤다.

고봉 스님이 "새끼가 어미 되 고, 어미가 새끼 됩니다"하니, 그 이후로 강제노동을 시키지 않았 다고 한다.

그 후 스님은 금강산에 탄옹 스님을 만나러 갔는데, 긴 장마 에 식량이 떨어져 겨우 한 되 밖 에 남지 않았다.

이를 보고 탄옹 스님이 말했다.

"우리 참고 있다가 비가 그치 면 죽이나 한 그릇 쫓아먹고 내 려가세."

그러하여 서로 기다리다가 1

"한번 죽으면 그만인데 죽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가?"

하여 두 사람이 한 바탕 웃었 다.

이렇게 한 세상을 지낸 고봉 스님은 탑골 승방에 계시다가 화 계사로 옮겨 1961년 8월 19일 입 멸하셨는데, 시종일관 말 한 마 디 없이 가셨다. 다비 후 그 사리 를 화계사 동산에 모셨는데, 대 은 스님이 짓고 무에 거사가 쓴 작은 비가 세워졌다.

'단지불회 즉시견성(但知不 是即見性).'

단지 알지 못할 것인 줄 알면 이것이 견성성불이라는 말이다.

스님의 기라성 같은 도반으로 는 장수도인 해암 스님과, 무욕 의 성자 전강 스님, 원효의 후손 설석우, 생사에 자재한 운봉 스 님, 대쪽 같은 효성 스님, 숨은 보 살 적을 대화상, 의식 잘하는 용 음 스님 등이 있었다.

# 화두(話頭) 이야기

말법시대와 나누는

어떻게, 무엇으로 진리로 운살을 구현해 갈 것인가? 말법의 온갖 허물 속에 함께 있으면서도



### 고목스님의 책들

#### 新 유식학(보정판)

삼라만상이 오직 식(識)일 뿐이어서 마음을 알면 자연히 세계를 알게 된다.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 명상, 그 푸른 눈의 지혜

명상의 기본원리와 비바사나, 요가명상 등 실용성 높은 생활명상법 수록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아가는 철학적 사유와 禪.....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되는가?

고 목 지음

#### 금강경 최상승해(근간)

차별화된 최상승의 해설. 현대인이 반드시 읽어야 할 영원한 진리의 보고(寶庫)

고 목 지음

고목 지음 신국판 464쪽 도서출판 밀양 ₩16,000

저자 연락처 : 055-353-6142, 010-2356-6142

옛부터 조사(祖師)들은 '삶이란 억만감의 향상으로 가는 것'이며 향상의 여정에서 자기완성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했다.

- 머릿글 중에서 -